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5-6

대부흥전도주일

2026.3.29~4.19 벨엘교회로 초대합니다



씨앗 속에 감춰진 숲

대부흥전도주일이 시작되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기간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직접 나갈까요? 주님은 모두를 구원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전도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의 희망이나 강력한 문구가 우리 머리에 들어오면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마음에 함께하시는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는가"하고 고백하게 되지요.

이 생명의 역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과 같이 뿌린 씨앗들이 많은 곡식으로 열매가 되고, 온 밭을 가득 채웁니다. 나무로 말하면 숲을 이루게 되죠.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위에 선한 영향이 끼치고, 전도하여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숲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씨앗을 뿌리는 일은 간단하거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거름은 거름으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뿌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구원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은혜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뿌리지 않은 자가 수확의 즐거움을 기대하는 건 공상이지만, 실제 뿌리는 건 확실한 보장이요, 희망이며, 약속된 즐거움입니다. 숲을 마음에 그리는 건 웃음으로 거두는 걸 상상하며 생명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씨앗은 열매를 맺고, 열매들은 숲을 이루어요. 예수님을 믿는 열매들은 기쁨 가득, 방긋 웃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박광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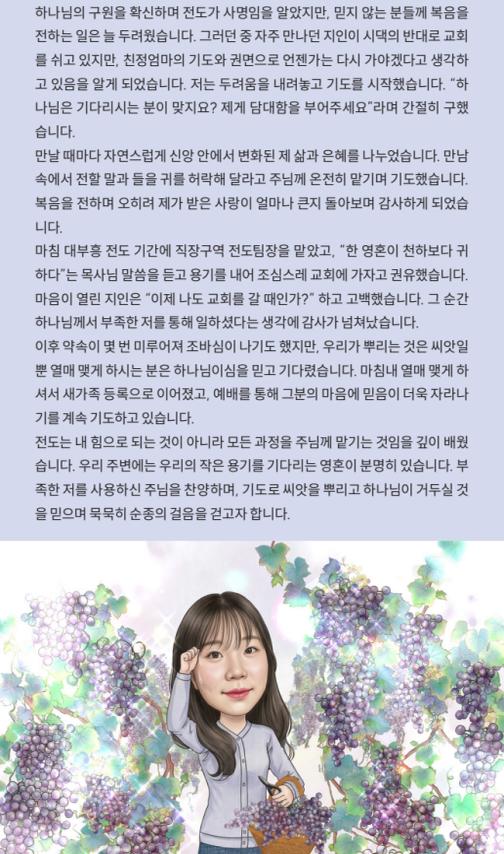
벨엘교회는 광야에서 배회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벨엘'이라 칭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왜 '벨엘교회'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상을 환영합니다.

담임목사 박광석



박광석 목사

*벨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



지친 마음의 토양을 살피며 공감으로 심은 기도의 씨앗

박정은 집사 (M-3교구)

저는 둘째 아이의 발달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랜 방황이 있었지만, 설교를 통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아이가 유아부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직접 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반에는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등록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과거 양육에 미처 정착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라 떠올라, 학부모님들이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때론 예배 사전과 안부를 보내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다가갔습니다. 약 4개월간 교제하며 대부흥 전도 기간에 자연스럽게 등록을 권였습니다. 때론 연락이 닿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등록 이후, 엄마와 떨어져 지내던 아이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학과를 세례까지 이어지도록 관계를 지속하며 독특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대상자를 위해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려는 자리를 깨닫습니다. "오직 지친 마음을 살피는 이는 하나님의 마음" (고전 3:7)는 말씀처럼, 시간이 남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아이를 돌보며 지칠 때도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은혜 충만한 전도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조금씩 대신, 일상의 진심으로 영혼에 축복한 물을 주다

김일국 집사 (I-9교구)

저는 피부관리사로 일하면서 한 고객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삼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종교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소개하려고는 관리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일상을 나누며 관계를 쌓았죠. 그 시간이 단순한 서비스나 아니라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담 없이 다가가는 것, 진심 어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졌을 때, 삼을 벗어나 집을 대접하며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번은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자고 권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시작되었고, 마침 다가오는 초창기 기간에 편안하게 초청 의사를 전하며 친철히 다가갔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휴식과 부담을 느껴 삼에 안오시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습니다. 초청 후 바로 확답이 없어 조금 걱정되기도 했지만,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붙였습니다. 결과가 짐작하기보다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으로 대하자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교회에 등록하신 그분은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 "감사하다"는 고백을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구역 식구들과 교제하며 믿음이 자라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를 배가됩니다. 전도의 열매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는 대단한 말씀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이번 대부흥전도는 모두가 각자의 전도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순종으로 동행한 걸음 끝에, 마침내 한 영혼을 하늘의 기쁨으로 거두다

배승아 청년 (I-청년1부)

저는 같은 캠퍼스, 학과의 후배를 마음에 품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후배가 의뢰 선교 동아리에 들어온 것을 보며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며 진심 어린 친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후배를 위해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전공 자료를 챙겨주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했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후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믿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그때마다 기도를 배가했습니다. 이 후배는 기도회 등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갔습니다.

과정의 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론 크리스천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에 낙심하기도 했지만, 제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역할은 설득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확신 없이 있던 상태에서 함께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곳에서 후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귀국 후 스스로 교회에 나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도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듯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동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전도를 주저하고 계신다면 부담 대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감격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수확을 위한 네 가지 농사법



토양 살피기

전도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공감하기

- ① 가까운 친지나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②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겐 **연락**해서 마음을 전합니다.
- ③ 대상자를 향해 **칭찬할 것과 감사할 말을 전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벨엘교회를 소개합니다.



물 주기

꾸준한 안부와 기도로 관계의 끈 놓지 않기

- 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② **연락**해서 **좋은 감정을 표**합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③ 상대방이 흐뭇해하거나 기뻐할 일을 복음과 함께 **전**합니다. 교회 간증도 좋습니다.



기다리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기

- ① 상대방의 미온적인 태도나 거절에 **단념**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도**하고, **재접촉**합니다.
- ② 간단한 **선물**이나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좋은 인상을 얻게 합니다.
- ③ 포기하지 않고 "대부흥 전도 주일"이 될 때까지 좋은 마음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합니다.



모시기

기쁘게 교회로 이끌기

- ① 실제로 인도해 **올 날짜를 서로 결정**하여 모시고 옵니다.
- ② **직접 가서**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
- ③ 약속을 잡아서 **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모셔 올 수 있습니다.
- ④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고 **연락**하고 인도합니다.

"당신이 뿌린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2026-1 대부흥 전도주일 미취학부 공연 안내

일산 (1) 영유아부 (24~22년생)

탈인형극 사랑 가득한 벨엘 베이커리 벨엘 베이커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짜: 4월 12일(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5층 유아부실

2부 활동 | 음률 활동 "춤추는 베이커리"

일산 (2) 유치부 (21~20년생)

복합 인형극 토끼와 거북이 출발!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 과연 누가 먼저 결승선에 도착할까요?

날짜: 4월 19일(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5층 유치부실

2부 활동 | 키즈 쿠킹 "토끼 식빵 롤, 거북이 스낵"

운정 (1) 영유아유치부 (24~20년생)

복합 인형극 미운 아기 오리 미운 아기 오리들의 대모험 우리 모두 달라! 그래서 특별해!

날짜: 4월 19일(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2층 유치부실

2부 활동 | 쿠킹 스쿨 "요거트 치즈케이크 만들기"